

<12월에 보내는 말라위 2025년도 선교편지>

눈 깜박할 사이에 2025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다 보니 어느새 세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도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11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차별금지법 통과와 더불어 환율불안정으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아래 의미있는 성탄과 함께 희망 담긴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Happy New Year!

● 말라위 상황



그렇게도 떠들썩하게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종전의 대통령이었던 피터 무타리카가 재집권을 성공하였습니다. 전 정권의 초인플레이션과 환율문제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대었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끝없이 오르기만 했던 옥수수 가격이 잠시 내리는 듯 했습니다. (85,000K--→65,000K)

그런데 기름파동이 종전과 다른 차원으로 파동이 터지면서 수입국인 탄자니아와 모잠비크에서 휘발유는 물론 디젤까지 들어 오지를 않아 말라위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오토바이 택시 영업과 미니버스 영업이 거의 중단될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종전에는 그래도 2-3주이면 풀렸었는데 지금은 한달이 넘도록 풀릴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IMF등 여러 기관과 유럽국가들이 지원하고 부채를 탕감 또는 연기해주어 부채30%를 상환하여 겨우 숨통이 풀렸습니다.

아울러 오일값이 2500과차에서 3500과차로 40여 %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가가 이에 맞추어 급등하였습니다.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사회범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전에 남편이 은행간부이고 부인이 의사인 말라위 지식인 부부가 강도의 총에 피살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많지 않았던 말라위 사회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또한 길가의 변압기를 훔치려다가 감전되어 죽는 사고가 연발되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정부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 새 땅에 옥수수농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8에이커 즉 거의 만평에 해당하는 옥수수 농사를 처음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고르고 또 도랑을 만들고 매번 60여명이 넘는 교회식구들이 와서 직접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타운은 비가 너무 와서 지붕이 새고 온 방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정작 비가 필요한 농장에는 비가 거의 거의 오지를 않아 어쩌면 옥수수를 다시 심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하여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옥수수 씨앗 값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또 60여명의 인원이 다시 씨앗을 심는 다는 생각을 하니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봉사했던 분들 중에는 아기를 업고 온 아주머니가 열 분이 넘었고 또 이제 태어난 지 한달 정도된 쌍둥이 엄마도 거들어서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 분다 농장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또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 함께하는 미션하우스 완공



제가 사역하는 십년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해에 건축을 완공해서 인지 감회도 깊고 이제 다시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도 너무 오른 데에 다가 시멘트나 철근등 자재 구입이 쉽지 않아 너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모든 비용을 집계해보니 다른 해보다 두 배 이상 들었습니다. 당초에 이정도 경비가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움이 많은데도 건축을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지켜 주

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헌금 전액을 아프리카 집짓기와 식량구제를 위해 큰 마음을 모아 준 함께하는교회와 J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이 함께하는 미션하우스를 통해 엄청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 만나바이블 프로젝트



제가 처음으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 구제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사모 즉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모임을 맡으셨던 어느 목사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여러가지 변수와 장애에 의해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 바이블 성경읽기를 추진하시는 만나바이블 모임에 의해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경비는 몇 사람 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이러한 계기로 추진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차파타 큰빛교회에서 25명과 분다교회에서 15명이 주축이 되어 약 40여명의 성도들에게 빵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67%에 해당하는 문맹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6년도부터 읽기와 쓰기 중심의 문해교육을 시작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만나 바이블을 통해서 좋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말라위 언어인 치체와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언어 문해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40여명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차량구입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비자와 차량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륜구동 자동차를 여러 후원자분들이 후원해주셔서 구입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부족하여 한두분의 후원자님의 애정 어린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곳 말라위는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들어 이제는 빌리지나 농장을 사륜구동차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특히 말라위의 모든 빌리지 길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어 농사를 짓거나 옥수수 배달을 하는 경우 사륜 구동차가 아니고는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농사도 지어야 하고 헝거시즌인 이달부터는 옥수수 배달을 해야 합니다.

손을 모아 꼭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옥수수 경작과 추수와 배달 관련하여 사륜구동차가 필요하오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 앞을 못보는 랑기토니에게 희망을



랑기토니 소년은 제가 말라위에 처음 왔을 때에 항상 저희 사역이 있을 때마다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생의 손을 잡고 나왔

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방문하여 기도해주었더니 그의 어머니가 세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한번도 학교를 가보지 않아서 학교한번 다니는 게 소원이라고 하여 지금은 장애인 학교인 맹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상태를 의사선생님에게 진찰 받고 싶다고 하여 병원에 데려갔더니 당시에 안과의사 선생님이 한쪽 눈이 너무 튀어나와 많이 아프다고 하여 적출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쪽 눈은 고름이 많이 나와 그의 눈을 수술하려면 말라위 의술로는 부족하므로 다른 나라에 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의 세번째 소원은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하여 지금도 헝거시즌에 옥수수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TMTC 팀으로 오신 어느 공훈의 마음이 많으신 어느 H 전도사님을 통해 한국까지 올 여행경비와 체류비용의 후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병원에서 수술 또는 치료를 해야 할 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수술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어린이 놀이터



그동안 10여년의 염원이었던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가 지난 여름 캐나다팀의 방문으로 미끄럼틀과 그네 그리고 가장 인기있는 시소가 설치되어 종전에는 어린이 결석이 매일 10여명이 되었지만 어린이 놀이터

가 생기고 난 뒤에는 1-2명 수준으로 거의 결석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린이 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이시설들이 있어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즐거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항상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유치원 선생님 중 한 분이 안전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시설이 있는 땅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레 여덟 트럭을 사서 채웠습니다. 어린이는 이나라의 미래이고 다음세대의 주인공입니다.

항상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100채 집짓기 사역



원래 집짓기 사역은 익산에 있는 어느 교회 C권사님께서 20채의 집짓기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의 새마을 운동 사역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TMTC 와 S교회의 도움에 힘입어 지금은 55여채의 집짓기 사역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우기로 인하여 잠시 중단 되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짓기 사역도 은혜가운데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집들의 지붕을 우기 전에 완성하여 폭우를 피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르 겠습니다.

집짓기 사역은 현지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사역으로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폭우와 벼락으로 어느 한분이 잠자는 중에 번개를 당하여 모두의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짓기 사역은 현지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행복한 보금자리의 꿈을 안겨줄 수 가 있었습니다.

이 집짓기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과 모든 후원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샬롬

기도제목

1. 물가가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있는데다 현지인들의 폭동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라위 정부와 위정자들이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현지인들도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2. 현재 진행중인 새마을 운동사역이 자재 및 휘발유 파동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3. 사륜구동 자동차 구입의 재정을 허락하셔서 운송과 옥수수구제를 할 수 있도록 빌리지에 갈 수 있는 손발이 되게 하옵소서.
4. 100채 집짓기 사역이 2026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앞을 못보는 랑기토니의 수술할 병원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6.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1. 2026년부터는 경비절감을 위해 본인의 후원구좌를 이용하게 됨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IBK 630-011647-01-010 민경화

2. 2026년도에도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선교편지를 2개월 단위로 보내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